

#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도동서원



본 사업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전담해설사' 교육 교재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 목차

## 유네스코 서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01. 유네스코 세계유산	05
02. 서원의 이해	06
03. 서원의 주요기능	08
04. 동아시아 사립교육기관과 비교	14
05.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16
06.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17

## 달성 도동서원

01. 달성 도동서원 개요	23
02. 강학	29
03. 제향	34
04. 교류와 유식	39

달성 도동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40
-------------------	----



## 01. 유네스코와 유산

###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등재 기준,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 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 (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 156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 (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 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 (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 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 (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 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 (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 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공필(金宏弼) (1454~1504)	사적 (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 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 (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 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 (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 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 (1993)

## 02. 서원의 이해

###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성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수준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 업무 총괄</li> <li>◉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li> <li>◉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li> </ul>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li> <li>◉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li> <li>◉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li> <li>◉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li> </ul>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li> <li>◉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li> <li>◉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li> </ul>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 제향 ·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 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림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등이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畝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03.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 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화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齋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鄕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 講會	향사 <sup>享祀</sup> 를 지낸 후, 「백록동규 <sup>白鹿洞規</sup> 」나 「여씨향약 <sup>呂氏鄉約</sup> 」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 <sup>講生</sup> 이 강장 <sup>講長</sup> 앞에서 진강 <sup>進講</sup> 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지[柱: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쪽 종이]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홀기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 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읊례 <sup>揖禮</sup> 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읍례	큰 읊 <sup>揖</sup> 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 <sup>陳設</sup> :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첨배 <sup>瞻拜</sup> :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읍 <sup>相揖</sup> :서로간 읊례를 거행함-승당 <sup>升堂</sup> :당에 오름-독규 <sup>讀規</sup> :규약을 읊음-배독 <sup>拜讀</sup> :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 <sup>進講</sup> -예필 <sup>禮畢</sup> 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관습적 의례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sup>白鹿洞規</sup> , 사물잡 <sup>四勿箴</sup> , 심잠 <sup>心箴</sup> , 경재잠 <sup>敬齋箴</sup> , 숙흥야매잠 <sup>夙興夜寐箴</sup> 을 낭독하는 것이다.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을 다지는 기회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7일

구분	명칭	시기
비정기	이안례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례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례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례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는 경우



입제



성생례



집사분청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반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 교류와 유식

- 교류(交流):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
- 유식(遊息)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학기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藏修)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수양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品格)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남전향약, 예안향약, 해주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 04.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을 이루었다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중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7세기	16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제한 없음	지역 유생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유학	성리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주로 공자 등 성현	지역단위 선현
	의례	일부 서원만 유지	현재까지 존속
사회적 기능	국가정책 따라 변동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근대사회 전환 기여
건축	입지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기능	강학-제향-장서	제향-강학-유식

건축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강당 재사 도서관
	배치 유형	서원별 개별성 강함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인위적 폐쇄적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지역 성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 06.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 05.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 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 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 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 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경각),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집중적으로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 연속유산이란

- ‘연속유산’이란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先賢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표현된 건축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 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 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대부분의 서원은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 공간 구분

###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로 건립된 서원</li> <li>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li> </ul>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li> <li>강당과 사당, 문루가 일렬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서원 건축의 배치방식</li> </ul>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li> <li>누마루를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li> </ul>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li> <li>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li> </ul>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li> <li>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li> <li>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li> </ul>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li> <li>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li> </ul>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li> <li>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li> </ul>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li> <li>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li> </ul>

## 달성 도동서원

### 01. 달성 도동서원 개요

#### (1) 건립

##### 건립 배경

- 중종中宗, 재위 1506~1544 즉위 이후 김광필金宏弼, 1454~1504 신원
- 성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의 성리학은 김종직金宗直, 1431~1492-김광필로 이어지는 학통인식 공론화
- 김광필을 배향하는 서원은 유배지였던 전라도 순천의 옥천서원玉川書院을 비롯하여 곳곳에 설립

##### 건립 과정

- 1568년 현풍玄風의 향중鄕中 사람들과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김광필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쌍계서원雙溪書院 건립
- 임진왜란壬辰倭亂 중 쌍계서원 소실 후 서원 재건립 추진
- 1604년 김광필의 외증손 정구鄭逵, 1543~1620가 현풍의 사람들과 논의
- 중건역사를 관장할 원장을 객근郭昶 천거
- 김광필의 무덤 아래에 터를 잡아 현縣의 서쪽 15리 현 위치에 1604년 보로동서원甫老洞書院으로 중건



\* 쌍계서원이 있던 위치는 인가人家가 가깝고 장터가 있어 학생들이 공부하기 적합하지 않고, 김굉필의 발길이 드물었던 곳이라 하여 현 위치에 건립

## 도동서원 재정 마련

- 현풍 사람들이 감사에 식량, 목재, 철, 목수 등의 물력 지원 요청
- 인근 지역과 본현本縣에서 쌀, 선척船隻, 소금 등을 지원토록 하고, 고령高靈과 초계草溪 등의 장인을 지명하여 목재 등을 찾아서 보내도록 함
- 감사에 의한 속공노비 지급
- 관련 유물: 『전답안田畵案』, 『노비안奴婢案』 등

## (2) 사액

### 도동서원 사액

- 1573년 경상도감사慶尙道監司의 장계狀啓에 의해 비슬산록에 쌍계서원 사액 및 서적 반강頒降
- 1604년 현재 위치에 보로동서원으로 중건 후 1610년 관찰사의 계청啓請에 의해 도동道東으로 다시 사액

### 도동의 의미

- 공자孔子, B.C. 551~479의 도道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
- 후학들이 도동의 편액을 우러러보고 김굉필의 학덕을 흠모하며 도동의 의미를 깊이 체득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의미

## (3) 운영

### 도동서원 원규(院規) 제정

- 정구가 중건 초기 백록동규白鹿洞規를 모범으로 한 도동원규를 제정하여 매 삭망에 제생諸生에게 의리 강마講磨
- 백운동규와 이산원규伊山院規와 기본 방향은 같지만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
- 성주의 천곡서원규川谷書院規를 대본大本으로 해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임

### 도동서원 원규

- 향사를 경건히 한다謹享祀: 원장은 미리 제찬을 갖추어 재계齋戒를 엄숙하고 청결히 하여 삼가고 삼가서 제사를 지낸다
- 원장을 존경한다尊院長: 원장은 한 서원의 어른으로 원생을 이끌고 도道를 숭선하여 서원을 흥기시키는 자이니 서원에 들어온 선비들은 마땅히 존경하여 감히 가볍고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 유사를 가려 택한다擇有司: 유사는 한 서원의 일을 주관하여 다스리는 자이니 원장과 원중院中이 함께 논의하여 가려 뽑는다
- 신진을 영입한다引新進: 매년 향사 날에 신진을 천거하여 의논하니, 모두 1명씩 천거하고 천거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천거할 필요는 없다
- 앉는 차례를 정한다定座次: 앉는 것은 반드시 나이 순서로 하고, 만약 벼슬이 높은 자가 있거나 혹은 다른 지방의 손님이 있으면 모두 차례를 정하여 앉는다

## 도동서원 유사(有司) [원규]

- 반드시 순박하고 부지런하며 세세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마음으로 서원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만일 마음 쓰는 것이 거칠고 어긋나 서원의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거나 부끄러움 없이 규정을 어기고 바깥의 말을 많이 끌어들이는 경우, 작은 일이면 원장이 훈계하고 큰 일이면 원중에서 그를 책망한다
- 끝내 고치지 않으면 원장과 원중에서 함께 논의하여 쫓아낸다

## 도동서원 원생(院生) [원규]

- 천거받은 사람의 입원 여부는 원장의 주관으로 원회를 열어 원생들의 의견을 모아 정한다
- 천거 대상은 반드시 20세 이상으로 학행(學行)이 있는 자이고, 비록 20세가 되지 못하였더라도 사마시(司馬試)에 입격(入格)하였거나 향시에 합격하여 재주와 행실이 뛰어난 자로 한다
- 먼 지방의 선비가 만일 서원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비록 그를 추천한 사람이 없더라도 학생이 선취되었고 특별히 드러난 과실이 없으면 입원을 허락한다
- 새로 배우는 어린 아이, 20세 이하인 사람은 모두 양몽재(養蒙齋) 입학을 허락한다

\* 원규의 일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2013 참고

- 강습을 부지런히 한다(勤講習): 원장은 벗(현사)들을 맞이하고 초청하여 강학 권하기를 폐하지 않는다
- 어진 선배를 예우한다(禮賢士): 원장은 원생을 이끌고 고을이나 이웃 고을에 은거하고 있는 현인이나 도를 즐기고 있는 고상한 선비를 예로써 맞이하고 초청하여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 금지와 예방을 엄하게 한다(嚴禁防): 장자(莊子), 열자(列子), 노자(老子), 석씨(釋氏)(불교)의 책, 장기판이나 바둑판의 유희거리는 모두 서원에 들어오지 않는다

## 도동서원 원장(院長) [원규]

- 원장의 직임은 자주 가벼이 바꾸면 안 된다
-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경우면 원장 스스로 글을 갖추어 원중(院中)에 알리고 원중에 모여 상의하여 바꾼다
- 새 원장을 정한 후에는 원중에서 글을 갖추어 무리 중 한 사람을 보내어 청하고, 신규 원장이 교대한다
- 원중의 규정 및 관례와 현 상황을 알려주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책과 집기를 모두 전하여 관장하게 한다
- 원장이 잘못이 있으면 은밀히 알려서 고치게 하고, 잘못의 정도가 크면 원장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 『원장록(院長錄)』을 두어 역대 원장을 기록하고 아울러 부임과 교체된 연월을 기록하여 후임 원장이 그것을 열람하고 스스로 경계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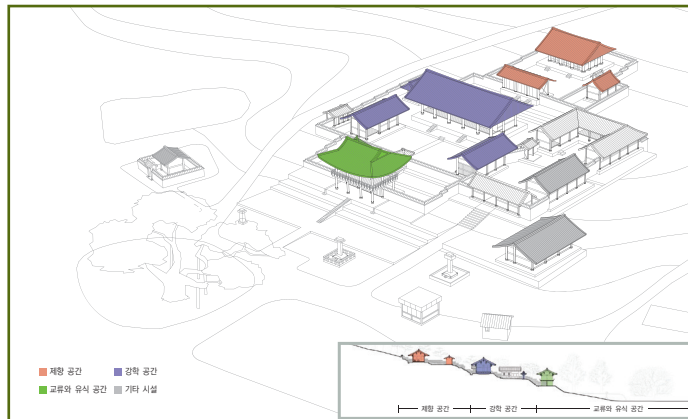
## (4) 도동서원의 공간 구성

### 도동서원의 입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
- 대니산 기슭에서 북향하여 전면의 낙동강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형
- 대니산과 낙동강이 어울려 북서향으로 돌출한 반도 모양
- 경사지 지형 조건을 최대한 살린 서원건축 배치의 탁월성 보여줌
- 중정당과 수월루에서 확인되는 강경 입지를 예술적으로 승화
- 선영과 김광필 묘소 가까이 위치

### 건물배치도

- 서원으로서는 드물게 북향
- 전체적인 건축구성과 배치형식이 규범적, 전형적이며 공간 구성이 우수함
- 전저후고의 경사지에서 위계에 따라 사당을 가장 뒤쪽 높은 곳에 배치하고, 앞쪽 낮은 곳에 강당과 동재, 서재를 배치한 전형적인 전학후묘 배치
- 수월루를 제외한 모든 건물들이 모두 맞배지붕으로 이루어짐
- 건물들이 정연한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치
- 수월루水月樓는 누각 건물이면서 외삼문 역할을 겸하고 있음



## 02. 강학

### 건물

#### 중정당(中正堂)

- 목적: 서원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
- 중정中正: 주돈이周敦頤, 960~1127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인용하는 것으로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夾室型
- 원장과 원임의 개인 연구실과 학생의 강학을 위한 강당으로 구성
- 중정당 기둥 상부에 오현 중 김광필이 수현首賢이라는 의미의 하얀 문종이(상지)가 도배되어 있음

## 중정당 관련 유물

### 도동서원 현판

- 사액 받을 때의 현판
- 도동道東: 성리학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뜻으로 김광필의 학문이 동방 도학의 조종祖宗이라는 의미
- 배대유裴大維, 1563~1632의 글씨
- 1607년 사액 되었으나, 실제 사액편액은 1610년에 내려짐

### 중정당 현판

- 도동서원 강당 편액
- 이관징李觀徵, 1618~1695의 글씨

### 서도동서원액판하(書道東書院額板下, 강당 앞 처마 밑에

#### 칠 없는 목판에 검은 글씨 현판)

- 1607년 도동서원을 건립한 정구 작성
- 도동서원 사액 현판과 이항의 글씨를 모각한 도동서원 현판을 걸게 된 사유 기재
- 편액을 우러러보고 김광필의 학덕을 흠모하며, 유학의 전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내용

### 백록동규(白鹿洞規)

-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가 백록동서원을 복구하며 지은 학규
- 구사九思, 구용九容, 학자십훈學者十訓이 부기됨

### 전교(傳敎)

- 1676년 경연에서 서원 모입자들이 흠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자, 숙종이 문묘에 종향된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의 모입자에 대한 물침勿侵의 전교를 내림

- 이 기문은 당시 숙종의 전교를 계판한 것

### 도동서원규목(道東書院規目)

- 정구에 의해 제정된 도동서원학규道東書院學規를 새긴 것
- 서원의 제례를 비롯한 구성원의 임무 등 서원 운영의 제반 규범이 적혀있음
- 다른 서원 학규에 비해 내용이 매우 상세하여 도동서원만의 독창적 모습을 보임
- 현재 현판은 1918년 다시 제작한 것

### 제집사분정기(諸執事分定記)

- 도동서원 춘추 향사 때 현관, 집사의 직임과 명단 기재

천 계	장 찬	사 세	사 관	전 작	봉 작	봉 로	봉 향	사 준	찬 창	찬 자	축 의	장 의	종 현	아 현	초 현	집 사 분 정 기
--------	--------	--------	--------	--------	--------	--------	--------	--------	--------	--------	--------	--------	--------	--------	--------	-----------------------

### 국기판(國忌板)

- 국기일國忌日을 적은 글
- 조선 태조太祖, 재위 1392~1398 이후 익종翼宗, 1809~1830까지 국왕, 왕후의 기일忌日 기록

### 환주문(喚主門)현판

- 중정당으로 들어가는 문의 편액
- 서원의 규모에 비해 크기가 작고 높이가 낮아 머리를 숙여야 함
- 환주喚主: 김광필의 시에서 인용, '내 마음의 주인을 불러 항상 깨어있게 한다'는 의미



## 거인재(居仁齋)·거의재(居義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학습 병행
- 거인재가 동재, 거의재가 서재에 해당
-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2칸의 온돌과 1칸의 마루 구성
- 거인居仁, 거의居義: 『맹자孟子』에서 '자신이 인仁에 머물러 의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인용

### 거인재·거의재 관련 유물

#### 거인재, 거의재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 장판각(藏板閣)

- 목적: 서원에서 생산된 목판 등이 보관된 곳
- 전적의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보관되던 장서는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

##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 김굉필과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사우지도師友之道는 서원 교육의 목표

## 도동서원 강학원규

- 겨울과 봄에는 오경五經과 사서四書 및 정호程顥, 1032~1085와정이程頤, 1033~1107의 여러 성리서性理書, 여름과 가을에는 사학史學, 제자서諸子書, 문집文集에서 읽고 싶은 것을 읽는다
- 서원에 들어온 선비가 비록 과거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과거 외에 또한 옛사람의 이른바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있으니, 만일 위기지학을 일상생활 속 타고난 본성 속에서 구한다면 마음을 두고 힘을 들일 곳은 '경敬' 한 글자를 넘지 않을 것이다
- 양몽재 제생은 반드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소학』을 외면서 익히도록 명하며, 과정을 엄격히 세워 잘못을 바로잡아라

## 원생 규제원규

-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반드시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을 스스로 지니고서 의관을 반드시 정돈하고 말과 웃음을 반드시 엄정하게 하라
- 조정의 이해利害, 변방 소식, 관직 임명, 주현州縣 관원의 장점과 단점, 득과 실, 사람들이 지은 과오를 모두 말하지 말아야 한다
- 음담패설이나 음식물을 요구하는 뻔뻔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사람을 뒤집어 매달아 바람을 쏘고 무릎을 때리고 궤를 들어 올리게 하는 모든 비루하고 업신여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음식 분배에 스스로 간여하거나 취사 선택하여 덕성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

- 김굉필을 주벽<sup>主壁</sup>으로 하여 북쪽 정위에 모셔져 있고, 동쪽 벽에 배워인 정구의 위패 봉안
- 좌우에는 창건 당시 그린 제향인물과 관련된 벽화 2점이 있음
-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

### 전사청(典祀廳)

- 목적: 제향과 관련된 제기 보관, 제향 준비
- 정면 5칸, 측면 4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ㄷ’자 형태

### 증반소(蒸飯所)

- 목적: 제기고, 향사 때 젓메를 짓고 기물을 보관, 준비
- 전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

### 의례

### 도동서원 향사(享祀)

- 도동서원의 향사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sup>中丁日</sup>에 봉행
  -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sup>丁</sup>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 도동서원은 주자의 무이고사<sup>武夷故事</sup>에 의거하여 춘추 향사 외에도 매년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서원 뒤 위치한 김굉필 묘소에서 향사를 지냄

\* 원규의 일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2013 참고

## 03. 제향

### 인물

#### 김굉필(金宏弼)

- 자는 대유<sup>大猷</sup>, 호는 사옹<sup>養翁</sup>, 한훤당<sup>寒暄堂</sup>, 시호는 문경<sup>文敬</sup>
- 한훤당은 부인의 본가(합천야로) 주변에 서재를 짓고 붙인 당호<sup>堂號</sup>
- 저서: 『경현록<sup>景賢錄</sup>』, 『한훤당집<sup>寒暄堂集</sup>』, 『가범<sup>家範</sup>』 등

#### 정구(鄭逵)

- 자는 도가<sup>道可</sup>, 호는 한강<sup>寒岡</sup>, 시호는 문목<sup>文穆</sup>
- 한강은 정구의 선영<sup>先塋</sup> 아래 바깥 산등이인데, 그곳에 재실<sup>齋室</sup>을 짓고 한강이라 이름 지음
- 저서: 『한강집<sup>寒岡集</sup>』, 『오선생예설분류<sup>五先生禮說分類</sup>』, 『주자시분류<sup>朱子詩分類</sup>』, 『의안집방<sup>醫眼集方</sup>』, 『광사속집<sup>廣嗣續集</sup>』 등

### 건물

#### 사당(祠堂)

- 목적: 제향인물의 위패 봉안

## 도동서원 향사 준비

### ① 알묘례(謁廟禮)

- 제관祭官은 종래 향사 3일 전에 입재하였으나 현재는 전일 입재

### ② 성생의(省牲儀)

- 강당 옆 석상石床 위에 돼지를 올려놓고, 희생이 충분한지 세 번 물음
- 현재는 계생단繫牲壇에 돼지를 묶고 행함

### ③ 분정례(分定禮)

- 강당에 개좌하여 강당 북쪽 벽의 분정판을 내려 헌관 및 제 집사의 직임을 정함

### ④ 사축(寫祝)

- 강당에서 축문祝文 작성
- 초헌관의 입회 하에 대축이 직접 작성

### ⑤ 제수 검시

- 제관들이 제수물목표에 의거하여 제수 점검

### ⑥ 설기(設器), 진설(陳設)

- 제물을 소정의 제기에 실찬實饌한 후 탁상에 제물 진설
- 희생은 돼지를 한 마리를 반으로 나누어 정위와 배위에 올리  
되, 정위에 올라가는 돼지에 꼬리를 붙여 둠

## 도동서원 향사 절차

- 향사는 축시에 진행
- 찬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사당 안의 진설 상태 점시點視

### ① 초헌례(初獻禮)

- 초헌관이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 폐백을 드리는 전폐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초헌례 때 함  
께 행함
- 헌관이 작을 올릴 때마다 모사茅沙에 술을 세 번 붓는 의식인  
삼제주三祭酒 진행
- 헌작獻爵이 끝나면 대축이 축문을 읽음

### ② 아헌례(亞獻禮)

- 아헌관이 정위와 배위의 신위전에 차례로 헌작
- 삼제주 후 헌작
- 독축을 하지 않고 제2점에 작을 올림

### ③ 종헌례(終獻禮)

- 종헌관이 정위와 배위의 신위전에 차례로 헌작
- 삼제주 후 헌작
- 독축을 하지 않고 제3점에 작을 올림

### ④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맛봄

## 04.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 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 건물

#### 수월루(水月樓)

- 서원 진입공간으로 사용되는 문루
- 향사나 서원의 행사 때 개좌와 파좌를 외는 곳으로 사용
- 1849년 창건, 1888년 화재로 소실, 1973년 복원
- 수월(水月): 주희의 시에서 인용, 차가운 물에 달이 비치듯이(寒水照月) 사육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 상태를 표현한 말
-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팔작지붕 건물
- 누하에 출입문 설치, 누상에 난간을 두름
- 누각 아래가 출입문이지만 닫혀 있을 때는 전사청을 통해 출입

#### ⑤ 철변두(徹邊豆)

-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는 의례

#### ⑥ 망예례(望瘞禮)

- 제향을 마치고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의례
- 도동서원은 묘우 서쪽 담장에 벽감(壁龕)에 넣고 태움

#### ⑦ 준례(餽禮)

- 향사를 마치고 신이 흠향한 음식을 모든 제관이 맛보며 신의 공덕을 기리는 의례
- 도동서원은 준례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대표적인 곳

### 도동서원 향사의 특징

- 김굉필의 묘소에서 묘제(墓祭)를 지냄
- 헌작 시 잔을 신위전에 올리기 전에 삼제주를 함
- 준례가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음
- 동쪽에서 들어갔다가 동쪽으로 나오는 동입동출(東入東出)을 함

\* 자세한 사항은 『서원향사』 도동서원 참고



## 달성 도동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서원 건축과 건물 배치의 탁월성을 갖춘 서원

- 1605년 건립된 서원
- 원규, 강규 등을 통하여 서원 운영 및 교육방식의 구체적인 양상 입증
- 성리학의 실천윤리에 집중하는 학풍 정착, 발전
- 제향 절차의 하나인 준례가 가장 완벽하게 남은 것을 통해 존현의식과 예학사상 전승의 본보기
- 강을 바라보는 자연 경관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한국 서원의 특징 대표
- 경사지 지형 조건을 최대한 살려 건물들 간 위계를 분명히 보이는 서원건축 배치의 탁월성

### 도동서원의 특징

- 1568년 김굉필 사후 64년 뒤 비슬산록에 건립하여 1573년 쌍계서원으로 사액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전소된 후 현재의 위치에 보로동서원으로 중건되었고 도동서원으로 사액 받음
- 정구가 도동서원 이건 기념으로 심은 400년이 넘는 은행나무(한훤당나무)
-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며 건너편 산들을 바라보는 전망을 확보한 수월루
- 도동서원 사당 벽면 좌우의 벽화: 「강심월일주江心月一舟」, 「설로장송雪露長松」

- 전학후묘의 공간배치와 전후상하를 꿰뚫는 종적 중심축을 기준으로 건물을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엄숙정제嚴肅整齊라는 유교적 예가 가장 우수하게 표현
- 중정당 기둥 상부에 5현 중에 한훤당이 으뜸이라는 상징으로 하얀 문종이(상지)가 도배되어있고, 이는 동방도학지종東方道學之宗으로 평가받아 조선 5현의 수현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서원 중 수위서원首位書院임을 나타냄

MEMO

MEMO